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1.28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이 종 림 사무관 (02-2100-2851) 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52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54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김 명 지 사무관 (02-2100-2865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	허 성 사무관 (02-2100-2655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62)
	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정 신 동(02-3145-8170)		이 민 규 팀장 (02-3145-8180)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라 성 채(02-3774-8505)		이 정 의 부장 (02-3774-8580)
	신용보증부 본부장 한 영 찬(053-430-4331)		박 주 현 수석 (053-430-4332)
	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김 인 태(02-729-7310)		이 낙 구 팀장 (02-729-6565)
	국제금융센터 시장모니터링 본부장 김 용 준(02-3705-6212)		최 성 락 부장 (02-3705-6231)
	금투협 증권파생상품본부장 이 창 화(02-2003-9013)		허 욱 부장 (02-2003-9100)

제 목 :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[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]

■ **일시 / 장소** : '20.1.28.(화) 16:30 ~ 17:3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■ **참석자** :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본시장정책관,
금융감독원 부원장, 한국거래소 본부장,
기업은행 부행장, 신용보증기금 이사,
국제금융센터 부원장, 금융투자협회 전무, 증권사 이코노미시트

□ **금융위원회**는 **'20.1.28.(화) 16:30분 정부서울청사**에서 **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**이 **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** 등을 **점검**하기 위하여 **금융상황 점검회의**(주재 : 금융위 부위원장)를 개최하였습니다.

※ **(별첨)**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참 고 | **부위원장 모두발언**

[배 경]

□ 최근 **신종 코로나 바이러스**가
빠르게 확산되면서
국내외 경제·금융시장에 대한 **우려가 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**안전자산선호 심리가 강화**되면서
주요국들의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등
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□ **우리 정부**는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
방역·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,

○ **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**을 **점검**하는 등
철저한 대응태세를 **가동**하고 있습니다.

□ 특히, **국내외 금융시장**도
향후 바이러스의 **확산정도**에 따라
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,

○ **관련 동향** 및 **국내외 금융시장상황**을 **점검**하고,
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
금융상황 점검회의를 **개최**하게 되었습니다.

[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]

□ **국내 금융시장**은
美-中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중동 불안 완화로
1월 중순까지 **안정적인 모습**을 보였으나,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
지난주부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금일 **코스피**는 **△3.1% 하락**하고,
환율은 **+8.0원**(+0.7%) **상승**하였습니다.

* **코스피**(pt, %) : **(1.21일)** 2,239.7, △1.0 → **(1.22일)** 2,267.3, +1.2 →
(1.23일) 2,246.1, △0.9 → **(1.28일)** 2,176.7, △3.1
환 율(원, %) : **(1.21일)** 1,167.0, +0.8 → **(1.22일)** 1,164.6, △0.2 →
(1.23일) 1,168.7, +0.4 → **(1.28일)** 1,176.7, +0.7

○ **일본**(△0.55%), **호주**(△1.45%) 등
주요국 주가도 **동반 하락**하고 있으며, (중국은 춘절로 휴장)
어제 **미국**(△1.57%)을 비롯한
영국(△2.29%), 독일(△2.74%), 프랑스(△2.68%) 등
유럽 주요국들의 **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**하였습니다.

□ **사스**('03년), **신종플루**('09년), **메르스**('15년) 등의
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,
향후 **국내 금융시장**에 **미치는 영향**은
바이러스 확산 정도, **국내 유입 여부** 등에 따라
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다만, **리스크 확산**에 따른 **안전자산선호**와
경제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
국내 금융시장은 **당분간 변동성**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.

□ 바이러스에 대한 **정부대응이 강화**되고,
확산이 완화되면서 **금융시장이 정상화**되었던
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
우리 금융시장은 **회복력**을 갖추고 있으며,

○ 사상 최고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
양호한 대외건전성*을 보유하고 있어,
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
* **(외환보유액, '19년말)** 4,088억$, **(순대외채권, '19.9월말)** 4,798억$

[향후 대응방안]

□ **아직**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
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**크지는 않으나,**
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글로벌과 국내 경제에도
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○ **상황**을 **예의주시**하면서
만반의 준비를 다 하여야 합니다.

□ 우선 **금융시장 안정**을 위해
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**강화**하고,
향후 **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**하여야 합니다.

○ **시장에서는**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겠지만,
각국 정부의 대응과 **그간의 학습효과**를 **바탕**으로
사태가 **궁극적으로 안정**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**단기적**으로는 사태가 **안심수준에 이를 때까지**
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**가능성**이 있으므로,
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등을 통해 대비할 것입니다.

○ 그리고 **시장불안이 확대**되면,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
신속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하여
관광분야 등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,
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하여,

○ **필요시, 신속한 금융지원이 즉각 시행**될 수 있도록
일본 수출규제 TF 및 금융시장반 등
이미 마련된 대응체계를 활용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아울러 **시장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,**
시세조종 등 **각종 불공정 행위**로
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,

○ 금감원·거래소 등 **관련 기관**과 협력하여
시장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**집중 감시**하여야 합니다.

[사모펀드 관련]

□ 한편, 최근 **일부 사모펀드 운용사**에서
유동성 문제로 인한 **환매연기 상황**이 발생하였습니다.

○ **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**들이
대량 자금회수 요청을 한 것이
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

□ 이는 편입자산 부실과 관계없는 **정상적인 펀드**에까지
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를 확산시키고,
펀드 투자대상기업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**증권사의 PBS*** **역할**은
사모펀드 운용지원과 인큐베이팅을 위한 것임에도,
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펀드 유동성에 대한
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
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
* Prime Brokerage Service: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, 증권대차,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

□ 향후에도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
증권사, 운용사 등 **시장참여자들간의 협조적인 관계**를 통해
해결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.

[마무리 말씀]

□ **바둑 위기십결**(圍棋十訣) 중
"신물경속(愼勿輕速)"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
("경솔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.")

○ 분명 **신종 코로나 바이러스**의 발병과 확산은
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한 요소이긴 하지만,

○ 이럴 때 일수록
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심 보다는
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**냉철한 분석과 점검**이 **필요**합니다.

□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도 **우리 금융시장**은
사태가 안정된 후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
복원력을 발휘하면서 **회복되었던 경험**을 가지고 있습니다.

○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
과거의 극복경험을 바탕으로
서두르지 않고, **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**한다면,
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